

## 로어기초교육단계에서의 문법자료선택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우윤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 문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외국어교수에서 문법교수자료들을 옹계 선택하고 교육단계에 따라 그것을 적중하게 리용하는것이다.

로어문법교수에서 문법자료들을 어떤 원칙에서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로어문법교수의 질을 한계단 높여 학생들이 로어를 실지 써먹을수 있도록 문법교수를 진행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 글에서는 로어기초교육단계에서의 문법자료선택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러고 한다.

로어기초교육단계에서의 문법자료선택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우리의 실정에 맞게 문법자료를 옹바로 선정하는것이다.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로어문법학습자료는 다름아닌 조선사람들을 위한 문법자료로 되여야 한다.

지난 시기 로어문법교과서나 참고서들에서는 로어문법체계에 따라 로씨야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체계에 따르는 문법내용을 서술한것들을 그대로 리용하는 부족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로문판으로 된 교과서들과 참고서들의 로어문법학습체계를 맹목적으로 따를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언어교제를 원만히 진행해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로어문법자료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선어문법과 로어문법은 그 내용에서 서로 류사하거나 같은것들도 있고 차이나는것들도 있다.

모국어문법과 외국어문법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습득과정이 보다 빠르게 촉진된다. 그러므로 외국어문법교수에서 이러한 일치현상을 적극 리용하면 해당한 문법내용을 습득하는데 도움으로 된다.

그러나 대다수 경우에 두 언어의 문법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그 내용을 습득하는데 모국어가 방해하는 간섭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실례로 기초교육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로어명사와 형용사의 성, 수, 격범주와 문장과 단어결합들에서 불일치현상에 대한 리해와 언어실천에서의 숙련과정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로어기초교육단계에 학생들속에서는 조선어형용사들이 명사의 격토에 관계없이 명사와 자유롭게 그 앞에 놓게 되는 우리 말 문법처럼 로어형용사를 명사와 결합시키는 현상이 있게 되며 이로부터 《новый книга》, 《новые книгу》와 같이 정확치 못한 단어결합을 쓰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로어명사들을 남성, 여성, 중성으로 가르치는 기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준 후에 형용사의 쓰임에 대한 자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로어형용사의 쓰임을 취급하면서 먼저 학생들에게 주위의 대상, 현상들에 대한 소유형용사의 결합을 통하여 형용사와 명사의 결합관계에 대한 지식을 준 후에 일반적인미를 가진 형용사들과 명사와의 복잡한 결합관계에 대한 지식을 줄수 있게 문법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예: дом → мой дом → маленький дом

парта → моя парта → большая парта

озеро → наше озеро → красивое озеро

часы → ваши часы → старые часы

언어들사이에 존재하는 문법적현상들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차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서도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로어동사와 우리 말 동사들을 대비하여 보면 격지배에서 일치되는 현상이 적지 않다.

실례로 로어동사 читать와 우리 말 동사 《읽다》는 대격과 결합하기때문에 로어동사적 결합 《читать книгу》을 습득하는 경우에는 로어명사가 대격에서 가지는 어미만을 알게 되면 보다 쉽게 습득할수 있다.

그러나 로어동사들가운데는 우리 말 동사와 격지배관계에서 차이나는것들도 적지 않다. 실례로 로어동사 《требовать(요구하다), помочь(도와주다), заниматься(공부하다)》 등의 경우에 우리 말에서는 대격로 《을, 를》을 요구하지만 로어동사들은 생격, 여격, 조격 등 각이한 격들과 결합하게 된다.

조선어와 로어문장성분들은 놓이는 순서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 말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성분들이 《주어-상황어-보어-술어》의 순서로 놓인다면 로어문장에서는 《주어-술어-보어-상황어》의 순서로 놓인다. 특히 로어문장에서는 술어로 동사가 쓰이는 경우 우리 말체계와 완전히 다른것으로 하여 기초교육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로어습득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있다.

이러한것을 고려하여 로어문법교수에서는 인칭변화를 먼저 취급하고 동사들의 격지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데 기초하여 점차 문장 또는 문맥속에서 로어문장을 습득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예: читать(읽다): я читаю, ты читаешь, он/она читает, ...

Брат читает.(형님은 읽고있다.)

Брат читает книгу.(형님은 책을 읽고있다.)

Брат читает книгу о герое.(형님은 영웅에 대한 책을 읽고있다.)

Брат читает интересную книгу о герое.

(형님은 영웅에 대한 재미있는 책을 읽고있다.)

Брат читает интересную книгу о герое в библиотеке.

(형님은 도서관에서 영웅에 대한 재미나는 책을 읽고있다.)

이처럼 로어문법교수자료선택에서는 기초교육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로어동사들과 우리 말 동사들의 격지배를 비롯한 문장론적결합에서 차이나는 점들을 호상면관속에서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로어기초교육단계에서의 문법자료선택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문법자료

선택의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로어문법자료선택의 과학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학생들이 로어학습에서 순차성과 체계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문법자료들을 선정하는것이다.

로어문법자료선택의 과학성을 보장하는데서는 로어소유단계별 기준에 맞는 문법자료들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인식은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단순한것으로부터 복잡한것으로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어교수의 문법자료의 선택에서는 단계별 문법자료들이 옹계 반영되여야 한다.

로어기초교육단계에서의 문법교수자료들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과 글에서 순차적으로 선택되여야 하며 그 사용빈도수가 높고 로어문법의 기초를 이루는 자료들로 구성되여야 한다.

기초교육단계의 문법자료들은 로어문법적현상들의 최소량을 이루게 하며 기초교육단계의 특성에 맞게 문법지식이 학생들의 로어습득에 부담이 되지 않고 실천적으로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문법자료들로 되여야 한다.

1수준단계는 로어기초문법을 주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로어명사의 성구별을 정확히 할줄 알며 정확한 발음, 억양, 쓰기에 중심을 두고 교수내용이 구성되여야 한다.

2수준단계는 로어문법의 형태론과 관련한 문제들이 취급되여야 하는 단계(형동사와 부동사는 제외)로서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문법적오류들을 자체로 극복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심을 두고 문법자료를 구성하여야 한다.

3수준단계는 형동사와 부동사를 포함한 로어문법의 전체 내용이 반영되여야 하는 단계로서 여기에서는 진술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로어어휘 및 문법적수단들을 일치시켜 감수하고 활용할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심을 두고 문법자료를 구성하여야 한다.

로어문법자료선택의 과학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학생들이 옹은 방법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문법자료를 정확히 선정하는것이다.

외국어는 철저히 많은 숙련과 반복을 요구하는 기능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외국어문법자료를 언어실천에서 적극 활용할수 있는것으로 선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지난 시기 로어교과서들에서 문법자료들은 도해와 도표와 같은 직관자료들을 통하여 그리고 본보기문장들과 본문, 대화문들을 통하여 잠재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있었다.

로어교수의 목적은 학생들이 로어로 된 사상을 정확히 리해하고 표현하는 언어활용능력을 키워 언어실천에 실지로 써먹을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로어교수에서 문법자료를 제시하는 기본형식은 언어행위의 본보기에 기초하여 제시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기본적인 형식으로 된다.

언어행위의 본보기는 전형적인 문장이나 대화문장과 같은것으로서 이것은 진술적기초의 구조식을 이루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문장들이다. 실례로 《Это Виктор. Он ученик. Он читает сказку. Ему интересно читать сказки.》(이 애는 워프르이다. 그는 학생이다. 그는 이야기책을 읽고있다. 그는 옛 이야기책을 읽기 재미있어 한다.)와 같은 문장들에 기초하여 통신과제에 따라 시칭형태, 격형태들을 보충하면서 《Ученик читает сказку о богатыре.》(학생은 장수에 대한 옛 이야기책을 읽고있다.), 《Виктор будет студентом.》(워

또르는 대학생이 될것이다.)), 《Вчера ему было интересно читать сказку.(어제 그는 옛 이야기책을 읽는것이 재미있었다.)》 등의 확대하는 식으로 문법자료를 줄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되는 로어문법자료들은 학생들에게 일정한 정황과 문맥적배경속에서 문법지식을 주는것으로 하여 해당 문법적현상을 언어실천에 옹게 활용할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자료로 된다.

기초교육단계의 로어교과서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이전에는 명사, 형용사, 대명사, 동사, 수사 등과 같은 순차로 문법자료들이 선정되었다면 최근에는 언어교제를 중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등과 같은 순차로 선정되고있는것이다.

로어명사의 격체계도 주격을 취급한 후 대격(이름말하기 《Как тебя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에서의 대명사의 대격), 생격, 전치격, 여격, 조격의 순서로 취급하고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어교육내용을 풍부히 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